

# 현대건축에 나타난 일상성의 특징에 관한 연구

- 일본 현대건축의 사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Everydaynes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 Focused on the Contemporary Japanese Architectural Works -

**Author** 김정숙 Kim, Jeong-Suk / 정회원,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건축학 석사  
최왕돈 Choi, Wang-Don / 정회원,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학 박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values and meanings of everydayness as a design concept by organizing concepts of 'everydayness' shown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systematically describing its characteristics through various analysis methods. 'Everydayness' shown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is defined and the criteria of case study are suggested, so that characteristics of everyday can be identified by systematically classifying and analyzing the Japanese cases in order to find the values and meanings of everydaynes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terials that show users' everydayness has indefinite potential as an element of architecture concept, and they play the role of communication and sympathy between architecture and users; second, implementation of everydayness leads to design emergence; third, everydayness can be widely applied to architecture; fourth, everydayness can be implemented regardless of architecture uses. In conclusion, the value of everydaynes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is that it draws user-based diverse and fresh architectural expressions that lead to opulent designs. To users, everydayness improves satisfaction of life gained from architecture and provides rich life environment because it changed common human life to a form of art.

**Keywords** 일상성, 일본 현대건축, 카즈요 세지마, 정체성, 창발성, 디자인 모티브, 사용자  
Everydayness, Contemporary Japanese architecture, Kazuyo Sejima, Identity, Emergence, Design motive, User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오늘날 일상성은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된 화두이며 문학, 예술분야에서도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일상성이 현대인들의 사고와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일상성은 현대인들에게 더 이상 시사하거나 진부한 삶의 단면이 아니며 삶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건축분야에서도 일상성에 대한 담론이 증가하고 있다. 현대건축의 개념은 근대건축에 나타난 관념 중심의 계획논리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주관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까지 포함하면서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일상성의 의미가 부각되는 배경이 되었다. 최근 들어, 일상성이 공모나 전시의 주제로서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일상성에 대한 탐구와 실천이 건축가의 관심을 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상성에 대한 높은 관심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상성의 건축은 그 정의와 범주가 일관되게 서술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건축이 본래 기능을 동반한 조형물로서 인간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으며, 일상성의 건축이 기념비성이나 작가주의에 대립되므로 두드러지게 노출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일상성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sup>1)</sup>은 이론이나 각각의 건축운동에 국한되어 논의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일상성의 이론 및 건축적 전개과정을 정리하고 현대 건축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중심으로 현대 건축에 나타난 일상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

- ① 이화룡, 현대건축에서의 일상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 7호, 2001, pp.117-125 : 일상성의 이론적 접근
- ② 임석재, 생산성과 시지각 - 뉴 브루털리즘과 대중사회, 시공사, 서울, 2000 : 뉴브루털리즘의 일상성
- ③ Deborah Fausch, Ugly and Ordinary: The Representation of the everyday, Steven Harris and Deborah Berke editor, Architecture of The Everyday,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Yale Publications on Architecture, 1996, pp.75-106 : 대중주의의 일상성

는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일상성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특징들을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현대건축에서의 디자인 개념으로서 가치와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2. 연구 방법 및 절차

우선 일상성의 의미를 고찰하는 방법으로 현상학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 그 이유는 현상학에서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함으로써 그 본질을 직관하고자 하는 특징이 건축에서 일상성이 나타나는 일관된 태도와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를 통한 일상성의 기본적인 의미와 태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는 건축에서의 일상성을 정의하고 그 등장 배경과 의미를 짚어본다. 일상성의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된 뉴브루털리즘과 대중주의가 그 대상이다. 이 건축운동들은 실질적으로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였으나, 그들의 일상성이라는 가치관은 이후의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일상성 개념에 직접적인 선례가 되었기 때문이다. 현대건축에서 일상성은 대중문화의 발전과 함께 그 인식과 실천이 강조되면서 범세계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되고 있다. 그 가운데, 현대건축에서 카즈오 세지마의 담론을 통해 일상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사례를 들어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주로 세지마를 비롯한 최근 일본의 현대건축작품을 중심으로 사례를 선정한다. 사례의 선정은 일상성의 건축이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마지막으로 일상성의 구현 방법과 적용범위 등을 기술하면서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일상성의 다양한 특징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 2. 일상성의 의미와 근대건축에의 등장2)

### 2.1. 일상성의 현상학적 의미

일상성(日常性)은 서양 철학에서 받아들인 개념이다. 독어로 Alltäglichkeit<sup>3)</sup>, 불어로 quotidiennete<sup>4)</sup>인데, 이것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everydayness, the everyday, everyday life, ordinariness 등 다양하게 우리에게 소개

되었다. 한자를 풀어보면, 일상(日常)이란 사전적 의미로 나날이 반복되는 생활이다. 일상성(日常性)은 나날이 반복되는 생활에서 고착된 사고나 성질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일상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철학에서는 개체의 생활이 유지나 인류의 재생산에 향한 인간 생활의 지속적·반복적인 존재방식으로, 문학에서는 인간이 날마다 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삶의 특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은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때문에 간과하기 쉬우면서도 중요한 것이다. 즉 우리가 일상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일상을 통해 삶의 본질을 깨닫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일상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태도는 현상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상적 세계 - 불가피하게 주관적, 상관적일 수밖에 없는 생활 세계 - 가 모든 객관적 이론의 기초와 그 탐구의 의미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통찰이 바로 현상학의 독창적인 기본틀이기 때문이다.<sup>5)</sup> 이러한 현상학의 다양한 개념과 특징들은 일상성의 의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현상학자들의 일상성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현상학에 나타난 일상성의 의미는 현실을 직시하고 인간의 의식과 지각에 의한 주관적인 판단과 감상을 지지함에 있다. 따라서 일상성은 사회를 구성하는 근간으로서 사회적인 맥락과 역사적인 의미축적의 산물임을 인식하고 그 자체로 이해되고 능동적이고 솔직하게 표현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표 1> 현상학자들의 일상성 개념과 특징

현상학자	일상성 개념	특징
에드문트 후설 (Edmund Husserl) <sup>6)</sup>	생활세계(Lebenswelt) :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환경 세계” 상호 주관적인 경험과 실천이 일어나는 문화 세계로 이해	사회적 의미 구축 현실 직시 의식에 따른 주관적 경험 중시 판단중지 태도
마르틴 하이데거 (Martin Heidegger) <sup>7)</sup>	일상성 : 오늘날, 우리의 나날의 생활 현존재(現存在, Dasein) 인간과 일상성관계로 사회구조 이해	현재(역사성 내포) 존재 인간의 내용, 이행, 관련 의미
메를로-퐁티 (Merleau-Ponty) <sup>8)</sup>	몸의 일상적 지각으로서 세계이해	개인의 주관적 경험 중시
알프레트 슈츠 (Alfred Schutz) <sup>9)</sup>	일상적 행위, 일상적 세계: 인간이 사회 구성의 근간	역사성, 사회성 능동적 주제

2) 본 연구에서는 일상성 건축사례들의 성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1950-80년대(뉴브루털리즘과 대중주의)의 건축을 근대건축으로, 90년대 이후에서 최근까지의 건축을 현대(contemporary)건축으로 정의한다.

3) Alltäglichkeit : 독일 현상학자 하이데거의 존재론에서 ‘현존재(現存在, Dasein)’의 해석을 그것의 평범한 일상성(Alltäglichkeit)에서 일차적이고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서 주장하면서 등장하였다.

4) quotidiennete :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의 저서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II, Fondements d’une sociologie de la quotidienneté, Paris: L’Arche. 1961’에 등장하며, 1968년에 발표한 La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 moderne이 영어로 Everyday Life in the Modern World(1984)로 번역되고, 이것은 다시 한국어로 현대세계의 일상성(1992)으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5) 이영호, [한국현상학회 편,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해석학], 서광사, 서울, 1992, p.5

6) ① 한진숙, 생활 세계적 현상학, [한국현상학회, op. cit.], pp.15-19

② 이남인, 에드문트 후설, [박정호 외, 현대철학의 흐름], 동녘, 서울, 1996, pp.24-32

7) ① 이기상, 하이데거의 현상실재의 해석학, [한국현상학회, op. cit.], pp.254-255

② 박찬국, 마르틴 하이데거, [박정호, op. cit.], pp.56-61

8) 조광재, 모리스 메를로-퐁티, [박정호, op. cit.], pp.86-89

9) 앨런 스윈지우드, 사회사상사, 박성수 역, 문예출판사, 서울, 1987, pp.313-317

## 2.2. 건축에서 일상성 개념의 등장

일상성의 의미가 건축에서 발견되는 시점은 일상성을 새로운 디자인 개념, 즉 하나의 예술적 작용으로 의식하면서부터이다. 일상성이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속성들에서 사용자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충실하게 건축에 반영함으로써, 건축을 보다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개념이다. 건축에서 일상성이란 사용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존재하거나 반복되는 행위 및 그 주체와 객체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해석이라 하겠다. 여기서, 일상성은 그 의미의 양면성을 가지게 되는데, 먼저 사용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존재하거나 반복되는 행위 및 그 주체와 객체들은 이미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루하거나 친근하게 느끼는 것이다. 반대로 그것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에 대한 자각으로서 새로운 발견이나 이미 답습된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표현 구별임을 의미하면서 결과물에서 새롭고 낯선 느낌을 주게 된다. 이것은 일상성에서 느낀 반응을 다르게 하여 디자인의 창발(創發)적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일상성의 범주에서 비일상성을 동시에 획득함으로써 디자인 개념이 발견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상성의 건축은 결과적으로 친근하면서 신선한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일상성의 개념이 처음 건축에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는 전쟁이 가져다준 참혹한 현실을 극복하고, 산업화 및 도시화된 사회 문명에 대한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양차 대전의 결과 사람들은 이상과 관념의 정치사상에서 비롯된 전쟁을 사회의 질병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근대 건축가들의 이상에 따른 계획된 도시는 실제로 사용자들의 개선과 편의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를 보였다. 즉, 전쟁의 충격과 근대건축에 대한 회의가 사람들에게 현실주의적 태도를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상과 관념보다는 이미 벌어진 다양한 현실에 대한 대처를 우선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건축에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건축의 주체가 건축가의 이상에서 실질적인 사용자로 전환이 되는 시발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기계의 발달은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라는 집단에서 대량생산을 소비하는 새로운 생활방식을 만들어내면서, 결과적으로 소비 주체인 대중을 부상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일상성은 근대의 합리성과 효율 위주의 사고에 의해 일부 엘리트만 향유하던 건축의 순수영역에서 배제되었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일반 사람들이 사회적 존재임을 자각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정서에서 성립된 것이다.

## 2.3. 뉴브루털리즘과 대중주의 건축의 일상성

이처럼 현실주의적 사고가 사회주체에 대한 인식을 바

꾸고 도시문명에 적응함에 따라 건축에 대한 시각도 변화하였다. 건축적으로 그 활동의 중심에 스미스 부부(Alison & Peter Smithsons)가 등장한다. 이들은 근대건축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행동으로 선보인다. 스미스 부부는 점차 관료적이었던 편제와 결정론적 계획논리에 불만을 품은 젊은 유럽 건축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CIAM IX에서 기존 CIAM의 그리드 형식을 무시하고 런던 동부 주거지를 사실적으로 포착한 사진들을 포함한 자유로운 형식<그림 1>을 새롭게 선보였다.<sup>10)</sup>



<그림 1> 스미스 부부와 나이젤 헨더슨의 CIAM 그리드, 1953

스미스 부부는 뉴브루털리즘이라는 건축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신들의 주요한 건축 가치관을 일상성과 연관지어 건축을 ‘일상생활방식의 직접적 결과’로 정의한다.<sup>13)</sup> 이러한 뉴브루털리즘은 전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대중문화가 형성된 사회에 순응하여 전개된다. 그리고, 데니스 스콧 브라운(Denise Scott Brown)은 뉴브루털리즘으로부터 일상성의 가치관인 대중성을 이어받아 로버트 벤추리(Robert Venturi)와 함께 대중주의 건축운동을 전개한다. 따라서, 이들은 현실주의와 팝아트의 영향으로 근대건축에서 나타난 예술과 일상을 구분하는 것<sup>14)</sup>을 지양하고, 대중과 소통하고자 건축가들의 판단을 유보하고 현실의 맥락을 중시하여 다양한 건축언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sup>15)</sup>

<표 2> 뉴브루털리즘과 대중주의에 나타난 일상성의 특징 비교표

운동	주요건축가	일상성 개념	건축적 특징
뉴브루털리즘 <sup>11)</sup> (1950~60년대)	스미스 부부	대중적 가치관 현실주의	맥락적 공간 대중성 및 생산성 솔직한 표현기법
대중주의 <sup>12)</sup> (1970~89년대)	스콧 브라운, 벤추리	포괄성, 맥락성, 대중문화	대중매체 역시주의 절충주의

10) 봉일범, 건축-지어지지않은 20세기, 도시: 사건과 구조, 시공사, 서울, 2009, pp.106-107

11) 임석재, op. cit., pp.96-107

12) Deborah Fausch, op. cit., pp.75-106

13) 임석재, op. cit., p.96

14) 르 코르뷔제는 L'Esprit Nouveau를 통해서 일상적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것들이 또한 그의 작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으나, 그는 예술의 순수성을 주장하면서, 일상적인 이미지들을 예술적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즉, 그는 건축의 순수한 예술영역에 일상성을 배제하였다. 베아트릭스 콜로미나, L'Esprit Nouveau: 건축과 광고, [마이클 헤이스, 봉일범 역, 1968이후의 건축이론], 시공사, 서울, 2010, pp.837-843

15) 데니스 스콧 브라운, 대중 문화로부터의 교훈, [마이클 헤이스, op.cit.], pp.82-90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직적인 건축 결과물들은 대중들의 호응을 얻는데 실패하면서,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움직임에 그친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가치관의 실험적 정신은 실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이며, 현대 건축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건축 언어에 영향을 주었다.

### 3. 현대건축에서 나타난 일상성의 의미

#### 3.1. 일상성의 현대적 의미

오늘날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서 대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상성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앙리 르페브르(Lefèbvre, Henri)는 대중사회의 일상성을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산업사회의 도시적 특징으로 규정하고 일상성에서 벗어난 자신이 사회적 존재감을 상실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한다.<sup>16)</sup> 이것은 앞서 언급한 현상 학자들의 일상성 개념과 상당부분 일치하기는 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대중문화 속에서 상실된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강조점이 있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와 정체성의 갈등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대중문화로부터 강요되어온 존재감 박탈과 대중문화 속에서 개인의 주체 의식 혼동이 그것이다.

첫째, 대중은 대중매체를 통해 소비를 강요받게 되면서 현실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르페브르가 자본주의 사회형성 과정을 통해 비판하였다. 자본주의 사회는 대량생산, 즉, 생산을 위한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생산은 주체보다 기술에 비중을 두게 되고 필요의식이나 사회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서, 일상성에 즐거움이나 집중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일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일상으로부터 탈출을 갈구하게 되는 이유이다. 또한 이러한 생산과정은 소비를 촉구하게 되면서 등장하는 광고는 소비에 대한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 상품의 기능 외에 소비자들의 욕구를 이미지화한다. 이에 따라 소비의 대상이 재화이기보다는 광고에 부각된 언어들에 의해 형성된 기호나 이미지, 담론<sup>17)</sup>들의 허상이다. 이것은 대중문화 체계에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지니면서 소비를 유도하는 강제 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는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한 회의를 유발시킨다. 즉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는 불안의 요소를 만드는 셈이다. 이에 르페브르는 ‘전유’<sup>18)</sup>의 개념

16) 앙리 르페브르,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역, 예코리브르, 서울, 1992, p.14  
 17) 광고에서 소비 욕구를 부추기기 위해 조작된 기표(시니피양:의미의 실체를 형성하는 일련의 음운과 문자)는 기의(시니피에:의미하는 것)와 분리된다. 광고를 통해 전달된 이미지와 기호들은 재화의 소비를 통해 소유되지 않는 허구임을 역설하는 것. Ibid., pp.19-21  
 18) 전유(專有, appropriation): 일상성을 극복하기 위해 앙리 르페브르가 개진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소유, 남의 것이나 공동의 것 혹은

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우리의 사고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중문화 속에서 개인의 주체 의식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문화적 취향이나 정치적 성향이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이기보다 자신의 일상을 둘러싼 문화 환경의 영향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취향이나 성향은 다분히 성장 과정을 둘러싼 문화 환경의 영향 속에서 형성된 것이며, 대중문화는 그런 문화 환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sup>19)</sup> 개인의 주체 의식을 대중문화로부터 가려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체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의 문제는 대중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박탈감과 주체 의식의 혼돈으로 정체성의 상실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용인되면서 그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 3.2. 현대건축에서 일상성의 의미

르페브르는 대중사회가 만들어낸 건축을 ‘공간의 생산’이라는 어휘로 표현한다. 공간의 생산이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근대건축의 공간은 건축가들의 추상적 개념을 기능적으로 구현하고 그들의 이념을 권력메시지로서 작용시키며, 이로써 보편적 개념을 대중들에게 실현시키는 일방적 행태라고 비판하였다.<sup>20)</sup> 한편 데보라 버크(Deborah Berke)는 정체성 인식을 대중매체와 연관지어 설명한다. 그녀는 일상성의 건축에 대해 11가지 특징을 제안한다.<sup>21)</sup> 건축가들이 선풍적 스타일이나 공식들에 대한 맹신을 없애고 프로그램과 구축을 고려한 디자인이 야말로 소속과 인종, 문화, 성 등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sup>22)</sup>으로 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점점 더 많은 건축가들이 일상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카즈요 세지마가 주관한 베니스 비엔날레는 건축가들에게 독창적이면서 일상적인 소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즉, 일상성이 주요한 관심사임을 보여주었다.<sup>23)</sup> 세지마는 이미 건축 설계과정에서 자

원래 자기 것이었어도 빼앗겨 남의 것이 된 것을 다시 자기 것으로 소유함. 즉, 자신의 존재를 자기가 소유하는 상태. Ibid., pp.36-39  
 19) 한국언론정보학회,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 한울 아카데미, 서울, 1990, p.370  
 20)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마이클 헤이스, op. cit.], pp.241-251  
 21) 버크는 ‘일상성의 건축은 1)포괄적, 익명적이고 2) 일반적이고 3) 평범하며 4) 원초적이고 5) 감각적이고 6) 무의식적이고 7) 실용적이고 8) 반기념비적이고 9) 기능적이고 10) 변화하며 11) 존재한다’고 말한다. Deborah Berke, "The Thoughts of The Everyday" in A. Krista Sykes, eds. Constructing a New Agenda\_Architectural Theory 1993-2009,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Yale Publications on Architecture, 2010, pp.72-77  
 22) Ibid., p.70  
 23) El Croquis Editorial, SANNA 155, Elcroquis, Seoul, 2011, p.7

신의 이념으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단순하고 현실적인 요소에서 출발하고 그것을 답습된 건축구현방법이 아닌 새로운 프로그램과 구법을 제시하는 건축가로 잘 알려져 있다.<sup>24)</sup> 이러한 맥락에서 일상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그녀의 건축 가치관은 이미 일본을 포함한 세계적으로 많은 건축가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독창적인 건축에 대한 재고는 건축가 자신의 이념이나 스타일을 버리고 사용자의 일상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면서 건축가 없는 건축들에서 영감을 얻기도 한다. 예를 들어, 풍토적인 건축물은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삶에 맞게 자연발생적으로 축적되어온 흔적에서 여유와 해학을 찾을 수 있다. 또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나 요구사항에 의해 건축물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디자인은 실용적이며 표현이 자유로운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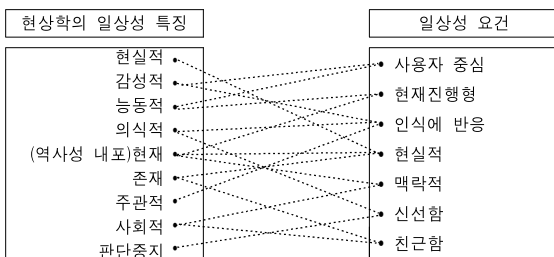
오늘날 사람들이 정체성을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해서 대중문화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대중문화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해석과 관계 형성을 통해 독창성을 창출할 수 있다. 일상적 소재를 이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취하지만 본래의 의미를 되찾는, 즉 전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팝아트 기법이 건축의 일상성 구현방법에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 건축에서 일상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건축 디자인의 주체가 건축가로부터 사용자를 포함한 영역까지 크게 확장되고, 자연발생적이고 우발적인 건축물들이 실용적이고 독창적으로 평가되면서 일상성은 사용자에게 재미와 흥미를 유발시키는 디자인으로 용인된다. 더불어 사용자의 정체성은 대중문화와 공존하면서 사용자의 주관적인 인식과 감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태를 창출할 수 있다.

## 4. 현대건축에 나타난 일상성의 사례 분석

### 4.1. 사례선정 기준 및 분석 방법

일상성을 잘 표현하는 작품의 선정 기준은 2, 3장에서 언급하였던 일상성의 정의와 현상학의 일상성 개념 및 특징을 근거하여 도출하였다.



<그림 2> 현상학의 일상성 특징과 건축의 일상성 요건의 관계

따라서, 일상성 건축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성 건축은 사용자 중심이다. 건축가의 이념이나 스타일에 앞서 사용자 자신이나 삶의 방식, 행위 또는 주변 환경 등 사용자의 경험이나 느낌에 영향을 주고 있던 모든 것들을 소재의 대상으로 삼는다. 둘째, 일상성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현재진행형이다. 일상으로 느낀다는 것은 그것을 현재 취하고 있기 때문이며, 현재는 단편이 아닌 사용자가 살아오면서 지속적으로 존재하였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진 역사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셋째, 일상성은 사용자의 이러한 경험과 느낌을 바탕으로 한 인식에 반응한다. 일상의 소재가 사용자가 어떻게 느껴왔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질보다 인식이 앞선다. 이로써 사용자의 개인적이고 감성적이며 주관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된다. 넷째, 일상성은 현실적이다. 사용자의 현실이 감상적이고 다소 저급하더라도 그것을 정제하거나 가공하기보다는 현실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실용적이고 원초적인 측면을 갖는다. 다섯째, 일상성은 맥락적이다. 사용자는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개인이 타인이나 집단과 형성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여섯째, 일상성은 신선함을 전제한다. 일상을 소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없던 것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나, 기존 인식을 탈피하고 답습된 구현방법을 지양하면서 새로운 재현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일곱째, 일상성은 소재가 가지고 있던 친근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일상성이 새로움을 취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정체성을 상쇄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재현의 의미를 잃는 것이다.

이상 일곱 가지의 요건은 일상성 건축이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으로서 일상성 건축의 범주를 규정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를 바탕으로 일상성의 개념에서 언급된 건축가들, 주로 카즈요 세지마를 포함한 유사한 경향을 가진 일본 건축가들의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이르는 작품들 중에서 선정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각각의 일상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선정기준에 합당함을 확인하고 그 특징들을 살펴본다. 특히, 일상적 소재가 어떻게 표현되었

<표 3> 일상성의 건축 사례

번호	일상성의 건축사례	건축가	연도
01	사이순칸 여자기숙사	카즈요 세지마	1991
02	모리야마 하우스	류에 니시자와	2005
03	도쿄 아파트먼트	소우 후지모토	2010
04	Bird Park Residence	히로시 나카무라	2007
05	House K	히로유키 시노자키	2011
06	나카메구로의 주택	레벨 아키텍츠	2009
07	이즈미오미야의 주택	타토 아키텍츠	2011
08	Ghost-like Architecture	신고 마스다 + 카츠히사오츠보	2010
09	무사시노 도서관	소우 후지모토	2009
10	House T	히로유키 시노자키	2012
11	Stairs+House	y+m 디자인 오피스	2010

24) El Croquis Editorial, Kazuyo Sejima 77, Elcroquis, Seoul, 1996, p.8



<그림 3> 일상성 건축의 선정기준 및 분석방법

능가를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상적 소재는 사용자의 주체, 행위, 객체로 분류하고, 분류된 사례들은 일상성 표현은 구현방법과 적용범위를 중점을 두어 기술하여 일상성 특징으로 연계하고자 한다.

## 4.2. 일상적 소재

### (1) 주체

일상성의 소재로서 주체는 사용자의 삶 자체를 의미한다. 그것은 개인적인 삶의 방식일 수도 있고, 맥락적 관점으로 사회의 소속감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 도시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은 도시라는 장소적 특징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체성은 공동주거라는 삶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사이순칸 여자기숙사는 건축가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생활 방식 자체를 긍정적으로 자각하고 그 점을 부각시켜 새로운 프로그램과 공간으로 표현함으로써 일상성을 획득한다.<sup>25)</sup> 이것은 현실에 대



<그림 4> 사이순칸 여자기숙사 내부전경

한 긍정적인 태도로서 그녀가 자각한 공동생활의 삶을 숨기지 않고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기존 공동주거 형식을 깨고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창출하여, 이 건물의 독자적인 공간배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모리야마 하우스는 공동주거에 독립적인 정원을 취하고자 유닛을 단일 건물이 아닌 흠어진 건물군으로 배치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사적공간은 서로 연계되어 주변 공적공간으로 이어진다.<sup>26)</sup> 이것은 독립된 사적인 공간과 골목을 연상시키는 도시공간이 관계를 맺으면서 친근하면서도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림 5> 모리스 하우스 외부전경

25) “이러한 현상들이 꼭 비정상인 것은 아니며 어쩌면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녀는 이를 숨기거나 위장하는 대신 노출시켜서 강조하자고 생각했다. 이런 방식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용해 사회적인 비평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래서 침실을 모두 같은 층에 나란히 배치하고 두 개의 커다란 공간 사이에 침실 구역이 배치되었다. Ibid., p.13

26) RUBIO, Augustin Perez(COM), Houses : Kazuyo Sejima + Ryue Nishizawa, SANNA Ltd. 2007, p.91

도쿄 아파트먼트는 공동주거에서의 독립된 삶에 대한 갈망을 드러낸다. 마치 구릉지형의 집합주거를 옮겨놓은 듯 구성하여 기존 아파트에 획일화된 평면 형태를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의 도시형 공동주거의 모습을 제안한다. 이 건축물은 다섯 개의 주거유닛이 각각 독립된 방들을 구성하면서 이들의 접근은 외부계단으로 연결한다. 즉, 외부 계단을 통과하면서 마치 산을 산책하는 경험과 자신의 주거가 산 정상에 지어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sup>27)</sup> 이로써, 사용자는 공동주거에서 독립적인 공간과 형태를 제공받고, 이로써 건축물 내에서 도시의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림 6> 도쿄 아파트먼트의 외부계단

Bird Park Residence는 공동주거로서 새둥지라는 자연의 요소를 끌어들이어 주변의 자연환경적 맥락과 공동적 삶이라는 도시적 맥락을 동시에 취함으로써, 독특한 형태의 일상성 건축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림 7> Bird Park Residence의 외부전경

### (2) 행위

일상성의 소재로서 행위는 사용자의 경험과 지각에 의존한다. 사용자가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 무의식적인 행동의 패턴이나 경험의 연속성의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사용자의 행위를 건축가가 인식하는 것이나 행동의 패턴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House K는 놀이에서 반복되는 행위 패턴에 대한 일정한 습성을 표현하였다. 어린이들이 지붕에 즐겨 오르는 놀이 패턴이 건축적으로 구현되면서 실내에 외부의 지붕형태가 등장한다. 이로써 주택 내부에 친근하면서 새로운 놀이공간을 창출하게 된다.



<그림 8> House K 내부전경

나카메구로의 주택 또한 놀이패턴의 인식을 적용한 것이다. 어린이들의 공간이동 동선을 일방향으로 고려하여 오르는 부분은 계단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미끄럼틀로 계획하고 있다.<sup>28)</sup> 어린이들의 미끄럼틀이



<그림 9> 나카메구로의 주택 내부공간

27) 건축세계 편집부 저, 건축세계(165호), 건축세계사, 서울, 2009, p.36

28) <http://www.level-architects.com/works/house/nakameguro/nakameguro16.html>

계단을 대신하여 가구가 아닌 건축공간으로서 대체되어 상하층의 이동 동선을 다양화하고 사용자의 이용에 재미를 더하였다.

이즈미오미야의 주택은 클라이밍을 즐기는 사용자에 기호를 반영한 작품이다. 건축가는 클라이밍의 취미를 표현하기 위해 건물에 기능적인 공간<그림 10>도 제공하고, 사다리를 이용한 일상성 공간<그림 11>도 제공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클라이밍을 이 건물 곳곳에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사다리는 계단이라는 공간보다 간편하게 계획될 수 있다. 이처럼, 일상성은 동일한 기능의 일상 소재를 발견함으로써 간편하면서 다양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10> 이즈미오미야의 주택에서 기능적 공간



<그림 11> 이즈미오미야의 주택에서 일상성 공간

### (3) 객체

일상성의 소재로서 객체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객체에 대해 경험되어오면서 인식된 감성을 전제한다. 그러한 소재로서 일상성은 매우 다양하며, 신선한 느낌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그 방법을 일상적인 것과 언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물들에 대한 예기치 못했던 사용 속에 독창성을 발견할 수 있다.

Ghost-like Architecture는 건축가가 정원가꾸기를 좋아하는 사용자를 위해 정원에 일상성을 담는다. 이 건물은 기능적인 창을 미화하여 액자로 대체한 것이다. 즉, 창과 액자라는 일상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매일 접하는 정원을 액자 속에 담아내면서, 사용자에게 정원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일상성은 건축에서 매우 국부적이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다.



<그림 12> Ghost-like Architecture 외피부분

무사시노 도서관은 책꽂이가 가구뿐만 아니라 건물의 전체의 개념으로서 구조 및 외피로 인식된다. 이것은 도서관에서 책과 책꽂이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 해석하여 일상성을 획득한 것이다.



<그림 13> 무사시노 도서관 내부전경

House T는 상자형태의 공간들이 다양한 높이로 층층이 쌓여있는 구조로 그 바닥의 높

낮이가 다른 공간들을 연결시켜 재미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공간 중앙의 바닥면은 아래층에서 선반으로 사용하거나 아래층 바닥면과 함께 책상과 의자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sup>29)</sup>



<그림 14> House T 내부전경

사용자가 건축의 공간 안에서 경험했던 익숙함에 대한 물음을 표현한 것으로서, 건축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지붕, 벽, 바닥의 구조체를 변형하여 마치 가변적인 가구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건축은 구조와 가구의 대립을 이용하여 건축환경에 대한 통념을 일깨워준다. 이 건축에서 사용자는 기존에 느껴보지 못했던 신선한 공간감과 구조체의 긴장감을 경험하게 된다.

Stairs-House는 건축의 한 구성요소인 계단이 건축 전체의 개념으로 재해석된 것이다. 이 건물은 계단이 형태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거실이자 통로이고, 구조적으로 지붕이자 벽체, 바닥이며, 외부 공간을 동시에 이루고 있다. 이로써, 이 건축에서 계단은 사용자가 계단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디자인 개념이 된다.



<그림 15> Stairs-House 외부전경



<그림 16> Stairs-House 내부전경

### 4.3. 구현 방법

일상성의 소재는 건축 디자인의 모티브로서 그 이용성에 무궁무진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 소재를 살펴보면, 사다리, 창과 같이 특별할 것이 없이 당연하고 익숙하게 여겨던 것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재가 건축 디자인의 모티브로서 표현됨에 따라 사용자 자신의 소소한 일상에서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 소재는 건축물의 결과물에서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드러나면서 친근하고 다양한 소재의 가능성을 선보이고 있다.

일상성에서 일상의 친근한 소재를 낯설고 신선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구현방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축구현 방법은 앞서 사례분석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비교하여 그 유형을 재해석, 관계형성, 재가공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29) <http://olv.moazine.com/rviewer/index.asp>

<표 4> 일상성 건축의 분석내용

분류	번호	사례	소재	구현방법	적용범위
주체	01	사이순칸 여자기숙사	공동생활 방식	재해석	배치, 공간
	02	모리야마 하우스	골목풍경	관계형성	공간, 형태
	03	도쿄 아파트 먼트	구름지형	관계형성	배치, 형태
	04	Bird Park Residence	새둥지	재가공	형태
행위	05	House K	지붕	재가공	공간, 형태, 가구
	06	나카메구로의 주택	미끄럼틀	재가공	공간
	07	이즈미오미야의 주택	사다리	재가공	공간
객체	08	Ghost-like Architecture	창과 액자	재가공	외피
	09	무사시노 도서관	책과 책꽂이	재해석	구조, 가구, 외피
	10	House T	구조와 가구	관계형성	공간, 구조
	11	Stairs-House	계단	재해석	구조, 형태, 공간 등

(1) 재해석

재해석이란 사용자의 정체성과 관련한 요소를 크게 부각시켜 형성된 전체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가가 그 개념을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부각시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존의 인식을 탈피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선보이게 한다. 그 예로, 사이순칸 여자기숙사는 건축가가 극단적인 공동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대로 건축 프로그램에 적용하면서, 역설적 공간이라는 독자성을 확보하게 된다.

(2) 관계형성

관계형성이란 사용자의 맥락에 근거한 요소들을 삽입하거나, 결합, 대비 등을 방법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공존하는 것을 말한다. 모리야마 하우스는 건축물 밖의 풍경을 분리하고 그것을 건축물 사이에 배치하여 건물군 내에 외부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자는 사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공간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그림 33> 모리야마 하우스 배치 개념도

(3) 재가공

재가공이란 동일한 기능의 일상적 소재를 발견하여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즈미오미야의 주택에서 볼 수 있듯이 클라이밍을 즐기는 사용자를 위해 그와 비슷한 행위를 만들어내는 사다리라는 일상적인 소재로 대체한다. 또 Ghost-like Architecture에서도 정원을 아끼는 사용자를 위해 창에 예술적 감성을 더하여 액자로 대

체하였다.

4.4. 적용범위

사례를 통해서 일상성이 건축에 나타난 적용의 범위를 살펴보면, 공간이나 형태, 구조, 외피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Stairs-house와 같이 계단이라는 일상적 소재가 공간 및 형태, 구조를 아우르는 건물 전체의 개념이 되기도 하고 Ghost-like Architecture와 같이 건축의 일부에 적용되어 사용자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처럼 일상성의 적용 범위의 크기가 사용자의 만족감과 비례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일상성은 건물에 적용범위와 사용자의 만족감과는 상관없이 사용자의 기호나 디자인 개념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일상성 건축의 적용범위

번호	사례	배치	공간	형태	구조	가구	외피
01	사이순칸 여자기숙사	■	■	-	-	-	-
02	모리야마 하우스	-	■	■	-	-	-
03	도쿄 아파트 먼트	■	-	■	-	-	-
04	Bird Park Residence	-	-	■	-	-	-
05	House K	-	■	■	-	■	-
06	나카메구로의 주택	-	■	-	-	-	-
07	이즈미오미야의 주택	-	■	-	-	-	-
08	Ghost-like Architecture	-	-	-	-	-	■
09	무사시노 도서관	-	-	-	■	■	■
10	House T	-	■	-	■	-	-
11	Stairs-House	■	■	■	■	■	■

5. 결론

현대에서 일상성은 철학이나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현대인의 사고와 문화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관심의 대상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건축분야에서도 일상성은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건축에서 일상성은 사용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존재하거나 반복되는 행위 및 그 주체와 객체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해석으로, 뉴브루털리즘과 대중주의에 이어 현대까지 전개되면서 그 인식이 분명해졌고 현대건축에서 다양한 디자인 양상을 보이며 사용자 중심의 풍부한 건축언어로 구현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로서 현대건축에서 나타난 일상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와 관련한 일상성 소재가 건축디자인 모티브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며, 건축과 사용자에게 소통과 공감의 매개역할을 한다. 이것은 건축에 사용자의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건축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게 한다. 둘째, 일상성



의 구현방법은 디자인으로서 창발적 역할을 한다. 여기서, 일상성 건축은 일상적인 소재를 재해석하거나, 관계 형성, 재가공하는 방법을 통해 독특하고 낯설게 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과 구법을 제시하게 된다. 셋째, 일상성은 건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양하다. 일상성은 건축 디자인의 총체적 개념이 되기도 하지만, 공간 및 형태, 외피 등에서 국소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의도에 따라 다양한 형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일상성은 건축에서 참신하고 자유로운 표현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상성의 특징을 살펴본 바, 현대건축에서 일상성의 가치는 사용자 중심의 다양하고 참신한 건축적 표현을 이끌어내어 풍성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데에 있으며, 사용자에게 일상성은 인간의 평범한 삶의 실체가 예술로 승화되면서 건축에서 느낄 수 있는 삶의 만족감을 높이고 풍요로운 삶의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 참고문헌

1. 박정호 외, 현대철학의 흐름, 동녘, 서울, 1996
2. 한국현상학회 엮음,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해석학, 서광사, 서울, 1992
3. 한국언론정보학회 엮음,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 한울 아카데미, 서울, 1990
4. 봉일범, 건축 - 지어지지 않은 20세기, 시공문화사, 서울, 2009
5. 김기수, 건축의 일상성과 상징성, 비온후, 부산, 2000
6. 정립문화재단, 제3회 정립 학생건축상 작품집: 도시의 일상성 - "일상의 응시", 정립건축종합건축사무소, 서울, 2007
7. 임석재, 생산성과 시지각 - 뉴 브루틸리즘과 대중사회, 시공사, 서울, 2000
8. 앨런스윈 지우드, 사회사상사, 박성수 역, 문예출판사, 서울, 1987
9. 앙리 르페브르,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역, 에코리브르, 서울, 1992
10.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서울, 2011
11. 다이앤 기라도, 모더니즘 이후의 현대건축, 최왕돈 역, 시공사, 서울, 2002
12. 로버트 벤추리, 건축의 복합성과 대립성, 임창복 역, 동녘, 서울, 2004
13. 마이클 헤이스, 1968이후의 건축이론, 봉일범 역, 시공문화사, 서울, 2010
14. A. Krista Sykes, editor, Constructing a New Agenda - Architectural Theory 1993-2009,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2010
15. Steven Harris and Deborah Berke, Architecture of The Everyday,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Yale Publications on Architecture, 1996
16. El Croquis Editorial, Kazuyo Sejima 77, Elcroquis, Seoul, 1996
17. El Croquis Editorial, SANNA 155, Elcroquis, Seoul, 2011
18. RUBIO, Augustin Perez(COM), Houses : Kazuyo Sejima + Ryue Nishizawa, SANNA ltd. 2007
19. 이화룡, 현대건축에서의 일상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 7호, 2001
20. <http://olv.moazine.com/rviewer/index.asp>
21. [http://www.level-architects.com/works/house/nakameguro/nakamegur\\_o16.html](http://www.level-architects.com/works/house/nakameguro/nakamegur_o16.html)

[논문접수 : 2013. 01. 24]  
 [1차 심사 : 2013. 02. 19]  
 [2차 심사 : 2013. 03. 05]  
 [게재확정 : 2013. 03. 08]